

‘대통령 자리서 쫓겨난 윤석열 풍자展’

정태관 화가 ‘검찰총장 시절부터 파면까지’ 28점 전시 10~18일 목포 오거리·목포대 도림캠퍼스서 개최

내란수괴 혐의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세대화 특별전’이 전남 목포에서 열린다.

목포에서 활동하는 정태관 화가는 10일 원도심 차없는 거리에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윤석열 풍자展’ 개막식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목포 차없는 거리, 14일부터 18일까지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서 개최한다.

특별전에서는 내란수괴 혐의로 파면된尹 전 대통령에 대해 해학적

이고 풍자적인 기법의 수록화 작품 28점이 전시된다.

지난 2019년 ‘공수처법 국회 통과로 뒤늦게 걸려들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갈등을 소재로 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머리가 8개 달린 물귀신(水神) 요괴를 표현한 ‘김건희 부명 인간’,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파면’ 등 7년 동안 이슈화 된 작품이다.

정 화가는 그동안 십이지상(十二支像)을 모티브로 2018년부터 그해 가장 이슈화된 주제로 매년 25점이



정태관 화가의 작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칼춤'(왼쪽)과 '윤석열 옹산 사람'.

상의 작품을 제작했다.

그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작품은 2019년 검찰총장 시절부터 현재 재판소에서 파면된 2025년 4월 4일까지 제작했다.

정 화가는 “특별전은 내란의 잔물을 하루빨리 종식하고 파괴된 민주

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기획전”이라면서 “박정희·전두환 등 독재자들이 선포했던 계엄이 반복돼 큰 충격과 상처를 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세대화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목포=김재욱 기자

광주·전남 출향작가 무진회, 강진 봄 나들이 14~29 강진아트홀서 전시회...작품 38점 선배

서울에서 활동중인 광주·전남 출향작가 모임 무진회가 남도의 봄빛을 찾아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강진아트홀에서 회원전을 갖는다.

무진회는 지난 2002년 창립했다. 강진 출신 고 윤재우 화백이 초대 회장이었다. 이번에는 서양화와 한국화, 조각 등 다채로운 작품 38점을 선보인다.



박남 작가의 '행상여인'

박남 고문은 “이번 전시를 통해 참신한 문화창달의 결실과 강진군민의 복지, 문화생활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오래 기억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고완석, 공병, 김봉만, 김승근, 김씨니, 김연자, 김영순, 김영희, 김완현, 김윤기, 김인선

김정은, 김진호, 김진희, 김현옥, 박계일, 박남, 박동민, 박항환, 박현수, 서해숙, 송웅, 심계호, 심우재, 유진, 윤정원, 이경옥, 이안자, 이정섭, 장장희, 정란숙, 정란순, 정예숙, 전기권, 정화남, 조경신, 하철경, 홍문규 작가가 참여한다. /강진=김경선 기자

천은사에 피어나는 Monk's Dream

오는 26일, 지리산 재즈페스티벌 봄 공연

천은사에 재즈의 향연이 피어난다.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는 4월 26일 오후 7시 경내 템플스테이 앞마당에서 '2025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봄'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Monk's Dream'. 비밥의 거장, 텔로니어스

몽크(Theonious Monk)의 대표작에서 영감을 받은 무대로, 'Monk'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스님과 음악가 모두의 수평적 여정을 담았다.

피아니스트 전용준과 콘트라베이스리스트 김대호가 함께 무대를 이끌고, 재즈 보컬리스트 문미향이 따뜻한 봄 감성을 더한다. 이들은 각각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해 온 연주자로, 이번 무대를 통해 '꿈꾸는 재즈'의 순간을 관객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전용준은 통영국제음악제, 지리산국제재즈페스티벌, 서울재즈페스티벌 등에서 주목받은 피아니스트로, 자이언티, 빅뱅, 태양 등 대중음악과도 교류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쌓아왔다. 구조적이면서도 자유로운 그의 연주는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김대호는 절대음악감과 감각적인

연주로 국내 재즈씬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베이시스트다. 커트 엘링(Kurt Elling)과의 협연 등 해외 무대 경험도 풍부하다. 보컬리스트 문미향은 '달빛 같은 목소리'로 정평이 나 있으며, 전통 재즈보컬의 가치를 이어가는 주역이다. 2024년 한국대중음악상에 노미네이트되며 주목을 받았다.

주지 대진 스님은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Monk's Dream'은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라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크라운해태, 광주시민 위한 전통음악 감사 공연 16일 예술의전당서...한음회, 사내 동아리 임직원 180명 참여

크라운해태제과는 오는 16일 광주 예술의전당에서 전통음악 공연 '제4회 크라운해태 한음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석 광주 지역 고객들을 초청하는 감사 공연이다.

사내 전통음악 동아리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임직원 180명과 한음영재들이 주인공으로 나선다.

한음회는 임직원들이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대전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열고 있는 전통음악 공연이다.

각 지역 특색을 살린 음악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지는 흥겨운 축제가 열린다.

현재 사내에는 종묘제례악(무악(무의 몸짓), 가곡(정가네), 판소리(판판세), 민요(민들레 민요합창단), 사물놀이(꿈을 굶는 사물놀이) 등 5개 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지난 14년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쌓아온 실력을 선보인다.

/권형안 기자

기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하자



이정운 /신안소방서 119구조대

따뜻하고 싱그러운 봄기운이 계속되면서 활짝 핀 봄꽃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시민이 많다. 차박이나 캠핑을 통해 낭만과 여유를 즐기기도 한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봄철에는 늘어나는 야외 활동만큼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봄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선 우선 차박 화재 대비를 위한 차박용 소화기 비치에 기본이다.

차박은 차내 내장재뿐 아니라 연료,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화재

시 유독가스가 많이 생성되며 연소확산이 빨라 치명적인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터널 내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차박용 소화기는 대형 화재로 번지기 전 '골든타임'을 확보해 화재 초기 진압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7조(소화설비)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박용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고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비치하도록 규정

한다.

다만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규격은 능력 단위 1단위(0.7kg)와 2단위(1.5kg), 3단위(3.3kg)로 나뉜다.

차량별로는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 1개 또는 1단위 2개 ▲중형(16~35인승) 2단위 2개 ▲대형(36인승) 3단위 1개 및 2단위 1개 ▲'화물자동차' 중형(1t 초과~5t 미만) 1단위 1개 ▲대형(5t 이상) 2단위 1개 또는 1단위 이상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확보했다면 화재 상황에서 신속히 사용하기 위해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아래 등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안전한 행복한 봄 여행이 되길 바란다.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정·경 부 (062) 362-6116	사 회 부 (062) 362-6226
광 고 국 (062) 363-0005	문 체 부 (062) 362-6116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편집국(FAX) (062) 362-0078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인쇄디제리 (031)466-1000			
구독료 연달 : 1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독자견언·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생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문 암.....521-4270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9193-6322

담 양...010-9067-4076

곡 성...010-5602-1785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3610-9153

강 진...010-3608-0472

장 성...010-3610-7824

함 평...010-3616-4282

영 암...010-4604-3742

무 안...010-2050-0136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